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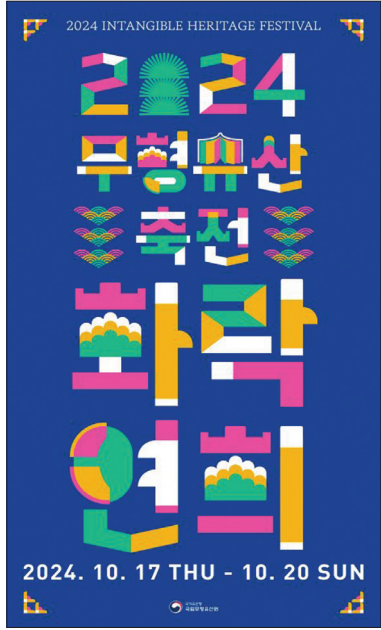
국립무형유산원, 17~20일 다채로운 공연·영상제·전시·체험·학술 프로그램 등 진행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7~20일까지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Joyful)', '온(Screen)', '벗(With)', '얼(Interacting)'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흥(Joyful)'을 주제로 열리는 개막공연 '담산파티'에서는 최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故)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하여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을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연 '정가와 춤을 위한 인터랙션, 축제의 빛'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흥겨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다.

이어 무형유산의 진면모를 화려한 시각적 자료들로 살펴볼 수 있는 '온(Screen)'을 주제로 한 행사로는 영상제 '더 쿡(The COOK)'이 개최된다.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무형유산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 작품들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공모한 무형유산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남천교 청연부와 국립무형유



2024 무형유산축전 포스터

산원 외벽에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외벽 영상도 상영된다. 다음으로, '벗(With)'을 주제로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제기차기와 윷놀이로 팀을 나눠 즐기는 경쟁이 펼쳐지는 '민속놀이대전'이 열리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참여 이수자들의 공방을 공개하는 '열린공방'을 통해 전통 공예품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마지막 주제인 '얼(Interacting)'에서는 무형유산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가무형유산 기능 종목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제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보유자작품전 '장인의 손길, 전통의 숨결'은 17일 오후 4시 20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간 열리며, '국가무형유산 합동공개행사'에서는 공시장, 소목장, 목조각장, 불화장 보유자가 직접 작품 제작과정을 현장에서 재현한다.

무형유산축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사전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인스타그램(@nihc2014) 및 무형유산축전 누리집(www.inhf.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국·내외 관람객과 함께하는 무형유산축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사람이 머무는 곳, 풍경을 이루다'

전북자치도 산림박물관, 가을 단풍철 맞이 작가 3인 기획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은 8일부터 가을 단풍철 맞이 기획전 '사람이 머무는 곳, 풍경을 이루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을 내장산 단풍철에 맞춰 산림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작가 3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와 독창적인 시선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 세계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작품을 통해 다각적 해석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수진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삶 속에서 마주한 '경계'의 의미를 탐구한다.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소재의 배치는 경계의 경직된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부안 작가는 일차적인 풍경에 작가적 해석을 더해, 바다의 고혹적 아름다움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자연의 묘사를 넘어, 바다가 담고 있는 깊은 삶의 형태를 탐구하며 관객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감상을 유도한다.

이진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응시하며, 페르소나로서의 자아,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적·공적 환경



김수진 작가 '유연한 경계'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에게도 이를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전시는 계절별 기획전전을 통해 박물관 전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예술과 산림이 어우러진 새로운 콘텐츠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상설전시관과 함께 기획 영상도 감상할 수 있으며, 단풍철 특별운영 기간인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휴관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부안 당산제' 미래 무형유산 가치 발굴

국가유산청 2025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 선정

부안군은 '부안 당산제'가 국가유산청 2025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승단계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

산을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또는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은 부안 지역의 독특한 마을 제의인 '부안 당산제'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당산제의 실태조사와 기록화 등을 추진하고, 무형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향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안 당산제는 총 1억1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래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부안 당산제의 미래 무형유산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문화재단, 길거리 마당극 '스트릿 웨딩축제 Merry Me'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길거리 마당극 '스트릿 웨딩축제 Merry M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릴레이 버스킹 △웨딩이벤트 '1000인의 결혼' △시민참여 퍼포먼스 '함사세요' 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릴

레이 버스킹으로 오는 12일과 19일, 다음 달 16일과 23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미스테리 대저택과 웨딩거리 일대에서 버블쇼와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00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1000인의 결혼'이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풍납문 광장에서 열린다. 이는 전주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웨딩 이벤트로, 미스테리 대저택과

지의 행렬을 통해 전주 웨딩거리가 특별한 웨딩 성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어 11월 2일과 9일에는 거리 인형극 '함사세요'가 새롭게 단장해 관객을 맞는다. 3미터 높이의 대형 인형이 등장하는 이 인형극은 전통 혼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받았다. 이 공연과 퍼레이드는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전 앞에서 시작해 풍납문 광장과 웨딩거리를 거쳐 미스테리 대저택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연은 시민 사전신청을 통해 함들이 과정을 직접 재현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청년작가 초대전 'Vital Rhythms'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청년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태권도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청년작가 초대전, Vital Rhythms'을 11월 24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김태균)에서 개최하며 가을 여행 등으로 태권도원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Vital Rhythms'은 태권도 역동성과 청년 예술가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결합한 전시로, 무예

와 예술의 교차점을 '리듬과 같은 생명력'으로 시각화했다.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에너지를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무예 본질과 예술의 융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청년 작가는 이두형, 여정은, 임예은, 현수진, Hee 등 5명으로 20점의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있는 20대, 30대 유망 예술인들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청년 2025' 작가 공모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7일부터 '전북청년 2025'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7~18일까지 2주간 전자우편을 통해 서면 가능하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전북청년'은 전북 청년 미술가를 발굴·지원해 지역 미술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전시다. 이번 공모는 시각예술 전 분야의 3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한 청년 작가를 모집한다. 전북출생 이거나 전북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는 1985년생 1월 1일 이후 청년 작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신작 제작비 500만원과, 평론가와의 일대일 매칭을 비롯해 2025년 11월 예정된 '전북청년 2025' 전시참여를 위한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작가 선정은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공모 선정 인원은 2~4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2024 문화의 달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 피어나다

2024. 10.18. (금) ~ 10.20. (일)
광한루원 일원

2024년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남원에서 열립니다.

남원의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하며, 전통과 새로움이 만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어우러질 찬란한 문화의 달, 10월 남원에서 피어납니다.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